

씩이 나고 꽃이 핀 막대기

말씀: 민 17:1-13

요절: 민 17:8

오늘 공부할 본문은 아론의 싹 난 막대기란 주제로 자주 설교되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본문은 “씩이 나고 꽃이 핀 아론의 막대기”(8)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이 막대기가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있는 물건 중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4절, “거기에는 금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향아리와 아론의 싹 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 판들이 있었으며”(히9:4). 주께서 성막의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와 언약궤를 두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향아리와 아론의 싹 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 판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주께 받은 율법 책은 언약 궤 안이 아니라 옆에 두었습니다. “이 율법 책을 가져다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 궤 옆에 두어 그것이 거기서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신31:26). 주께서 광야에서 행한 여러 가지 표적 중에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후대에 전하도록 한 것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아론의 싹 난 막대기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높이 들어 올린 놋 뱀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민21:9). 그러나 그 놋 뱀은 지성소에 두지 않았습니다. 뱀에 물린 백성들이 모세가 만든 놋 뱀을 쳐다보면 살았기에 이것은 백성들 사이에 거룩한 물건, 신비의 물건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주께 분향하듯 그 뱀에게 분향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놋 뱀을 깨뜨려버렸습니다.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 내고 모세가 만든 놋 뱀을 산산조각 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 뱀을 느후스탄이라 하였더라.”(왕하18:4). 하나님은 모세의 막대기를 하나님의 막대기 주의 막대기라 부르셨고, 모세는 그 막대기를 손에 잡고 주의 권능과 수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 막대기를 성막이나 지성소에 보관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막대기는 모세의 죽음과 더불어 이 땅에서 없어졌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모압 땅에 돌무덤에 묻으셨는데 아무도 그의 돌무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모세가 평생 동안 손에 잡았던 주의 막대기도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일반적인 죽음을 당하고 그의 막대기를 유품으로 남겼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국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론의 싹 난 막대기를 *지성소가 아닌 밖에서 두었다면 백성들은 거기다 분향하고 절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물(神物)이나 성물(聖物)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거의 모든 종교마다 형상을 만드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림이나 형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견지 않고 믿음으로 견지 때문입니다.

모세의 막대기는 하나님의 막대기였습니다(출4:20).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막대기이니이다, 하거늘”(출4:2). 장인의 양을 칠 때 쓰던 모세의 손에 잡힌 막대기가 주의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너는 이 막대기를 네 손에 잡고 그것으로 표적들을 행할지니라.”(출4:17). 모세의 막대기는 파라오 앞에서 던짐으로 뱀이 되었고, 나일 강물을 쳐서 피가 되었고, 시내와 강과 연못들 위로 내밀

어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했으며, 땅의 티끌을 쳐 이집트 온 땅에서 이가 되게 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자기 막대기를 내밀매 주께서 천둥과 우박과 불을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땅 위로 자기 막대기를 내밀매 동풍이 메뚜기들을 몰아왔습니다. 홍해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너는 네 막대기를 들고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출14:16)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막대기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섰습니다(출17:9). 그의 손에 잡힌 막대기는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주의 막대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모세의 막대기가 아니라 아론의 막대기입니다. .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1).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반역한 무리들은 이틀 간 주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첫 날은 반역에 동참한 주동자들인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250명의 통치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은 땅이 갈라지면서 산 채로 끝없이 깊은 구덩이로 직행했습니다. 250명의 통치자는 자기들도 주의 백성이요, 주께 분향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주 앞으로 나왔지만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불로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백성들은 공포에 질렸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루가 지나자 모세와 아론이 주의 백성들을 죽였다며 불평했습니다(민16:41). 이들은 여전히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회중들을 순식간에 소멸시키려 했지만 아론이 향로를 들고 주 앞에 섬으로써 재앙이 그쳤습니다. 이 날 죽은 백성들의 수가 14,700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누가 주께서 임명하신 제사장인가란 문제를 확증하기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 각 사람에게서 막대기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모든 통치자에게서 막대기 열두 개를 취하라. 또 너는 각 사람의 막대기에 그 사람의 이름을 쓰되”(2). 광야에서 막대기는 호신용, 도보용, 무기로 사용되기도 하고 홀과 같이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주의 막대기(시23:1).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 각 사람에게서 막대기 하나씩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집이란 12 지파를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통치자에게서 막대기 열두 개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12 지파는 성막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었고 지파마다 통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막대기를 취해 그들의 이름을 썼습니다. 향로 사건으로 이미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공개적으로 확증되었음에도 주님은 백성들 사이에서 다시는 이런 반역이나 불평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이 일을 다루셨습니다. “너는 각 사람의 막대기에 그 사람의 이름을 쓰라”(2). 이것은 누구의 막대기인지 알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는지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3절입니다. “레위의 막대기에는 아론의 이름을 쓸지니 그들의 조상들의 집의 우두머리를 위하여 한 막대기가 있어야 하리라.”(3). 레위 지파의 막대기에는 아론의 이름을 썼습니다. 나머지 각 지파는 자기 지파의 우두머리 이름을 썼고 막대기 하나가 한 지파를 상징했습니다. 에스겔 37장에는 에스겔이 유다의 막대기 하나, 요셉의 막대기 하나를 취해서 둘이 한 막대기가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에스겔 37:16,17절입니다. “너 사람의 아들이, 또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라 쓰고 그 뒤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과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온 집을 위하여, 라 쓰며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그것들이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겔37:16,17).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이 막대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해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는 것은 두 왕국이 통일된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 남북으로 갈라진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 이전처럼 한 왕국이 될 것입니다. 각 지파는 우두머리를 위해 한 막대기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각 지파의 통치자들에게 한 막대기가 신분용 또는 지위용으로 주어진 막대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의 막대기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너는 회중의 성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곳인 증언 앞에 그 막대기들을 들지니라.”(4). 하나님은 모세에게 열두 지파의 우두머리에게서 취한 막대기들을 주의 성막 안에 언약 궤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성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곳인 증언 앞”이란 말씀은 성막의 지성소가 주의 거처요, 주께서 그곳에 문자 그대로 실제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흔히 하나님은 무소부재(無所不在) 하시다, 주님은 어디나 계시다고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회중 한 가운데는 주의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각 집마다 사람들이 거하는 장막이 있었는데 그들 한 가운데 있던 장막 하나가 주께서 계시는 장막 즉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同行)하셨고,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광야의 회중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회중의 성막으로 나와 주를 경배하고, 주께 헌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거하는 처소를 장막이라 했고, 주께서 거하시는 장막을 성막이라 불렀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각자 집을 가졌듯이 주께서 이스라엘 땅에 거하시던 집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 주신 양식대로 솔로몬이 건축했습니다. 성막은 주와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각 지파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들은 주의 성막 언약 궤 앞에 두었는데 이는 주 앞에 그것들을 두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는 구약 시대와 같은 성막이나 성전이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이 땅의 어떤 도시나 마을에도 건물 성전은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는 대언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기를,”(행 7:48),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행17:24). 지금 이 시대는 성지(聖地)나 성전이라 불리는 장소, 건물이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의 몸이 주의 전이요, 주의 집입니다. 주께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신 대로 주님은 우리 몸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전3:16). 저는 구원받은 후에도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집인 줄을 알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나?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고전6:19).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주께서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후13:5). 초신자 시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니라.”(엡4:6). 성경 곳곳에 이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
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골1:27). 우리 몸이 주의 지체
요, 그분의 전이란 사실은 영광의 신비입니다. 주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 모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
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요일4:15). 자신의 몸이 주의 지체요, 주의 성전인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택할 사람의 막대기가 꽃을 피우리니 이로써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이 너희에
게 불평하는 말이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5). “내가 택할 사람의 막대기가 꽃을 피우리니...”(5)란 말씀은 제사장
직분이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나 힘이나 가문이나 장래성이나 과거의 행실을 기반으로 평가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른 것이란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사람들은 개 한 마리를
살 때도 혈통이나 성격이나 인물과 같은 외모를 살핍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으시
고 외모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인종, 민족, 성별, 지위, 신분, 빈부, 학력, 직업, 능력, 지혜, 성품
등 사람이 가진 어떤 것도 중시하지 않습니다. 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주님의 은혜에 따른 것입
니다. 오늘날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의 인물들을 강해하면서도 그들의 외모에 중점을 두고, 하나
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나 택함 받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고, 뭔가를 지닌 사람이었다는 식의 설교
를 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시고, 외모를 따라 택했다는 아주
사악한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나 야곱을 택하신 것이나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택하
신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인격이나 성품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수가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가 가장 적었습니다(신
7:7).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완악한 백성이었습
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 곧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이 좋은 땅을 소유로 주시는 것은 네 의 때문이 아
니니라. 너는 목이 뻗뻗한 백성이니라.”(신9:6). 아론이 택함 받은 것은 아론에게만 있는 어떤 장점이나 능력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
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고전1:26). 하나
님의 택하심에 외모는 아무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
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
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고
전1:27,28). 덕분에 사람들은 아론에 대해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했고, 도전했습니다. 아론이 나보다 잘
난 것도 없고 나은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택할 사람의 막대기가 꽃을 피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바싹 마르고 죽은 막대기가 꽃을
피우는 일은 죽은 자들이 땅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예표합니다. 주님은 마른 뼈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 군
대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 되어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
다.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이 죽고, 사라의 태가 죽었을 때 그들에게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
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한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12개의 막대기들 중에 친히 택하
신 사람의 막대기에 꽃을 피우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하는 불평하는 말을 그치게 하십니다. “내가...그치게 하리라.”(5)는 말씀은 이 땅에서 사역자들 뿐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늘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주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사람들이라면 주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 몸은 마른 막대기, 마른 뼈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안에 두신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연습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통치자들이 각각 자기들의 조상들의 집들에 따라 각각의 통치자에 대해 막대기를 하나씩 취하여 그에게 주었으니 곧 열두 막대기더라. 그들의 막대기들 가운데 아론의 막대기가 있더라.”(6).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고 각 지파의 통치자들은 막대기 하나씩 취하여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12개의 막대기 가운데 아론의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막대기는 따로 떼어 놓은 것이 아니라 12개의 막대기 속에 같이 두었는데 이는 오해나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막대기들 가운데 아론의 막대기가 있더라.”(6)는 말은 아론 역시 그들 형제들 중에 한 명이며, 그들에게 속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셔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그들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모두 백성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죄인들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영적 희생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와 크리스천들에 대해 불평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자기들 가운데 있는 목자들에게 대해 늘 불평합니다. 이런 불평을 잠재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람들의 불평, 불만을 듣고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인기나 명예를 구하거나 눈치를 보며 아첨하거나 스스로 권위를 세우기 위해 뭔가를 하다보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터집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그 막대기들을 증거의 성막 안에 {주} 앞에 두니라.”(7). 모세는 주의 명령대로 12 지파의 통치자들의 막대기들을 증거의 성막 안에 주 앞에 두었습니다.

8절입니다. “다음 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에 들어가니, 보라, 레위의 집을 위해 내놓은 아론의 막대기에 짝이 나고 봉오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렸더라.”(8). 주의 명령대로 12개의 막대기들을 성막 안에 둔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보라, 레위의 집을 위해 내놓은 아론의 막대기에 짝이 나고 봉오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렸더라.”(8). 마른 나무 막대기에 물을 주어 버섯이 생겼거나 곰팡이가 생겼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에 짝이 나고 봉오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렸습니다. 아론의 막대기는 나무에서 잘려 완전히 말라 버린 지가 수 년, 수십 년이 지났을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지계를 쪼기 때문에 늘 지계막대기가 있었습니다. 강하면서도 가벼운 막대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막대기는 바삭 마른 것들입니다. 아론의 막대기 역시 이미 나무에서 잘려서 사람의 손에 잡기 좋도록 다듬어졌을 것이고, 강하고 단단하지만 최대한 가볍도록 바삭 말랐을 것입니다. 그런 나무 막대기에 짝이 나고 봉오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생명의 전 과정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죽은지 아무리 오래된 나무라도 그 나무에 생명을 주어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른 뼈들에 생명을 주십니다. 이 장면은 사람의 몸이 죽어 땅에 묻힌 지 몇 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을 보여 줍니다.

성경은 사람을 풀에 비유할 때도 있고 나무에 비유할 때도 있습니다. 죽은 아몬드 나무 막대기에 짝이 나

고 봉오리가 나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리게 하신 주님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요5:21). 이 땅에 서는 사망이 하루 만에 수백, 수천, 수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만 생명의 주께서는 하루 만에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 날에는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집니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고전15:54).

9절입니다. “모세가 그 모든 막대기를 {주} 앞에서 취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저마다 자기 막대기를 취하니라.”(9). 모세는 성막에서 12개의 막대기를 모두 취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온 백성이 아론의 지팡이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고”란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 권능, 표적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며, 모세가 일방적으로 그에게 그런 지위를 준 것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론의 막대기에 썩어 나고 봉오리가 나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린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12,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았고 저마다 자기들의 막대기를 취했습니다.

10절입니다.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막대기는 증언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증표가 되게 하며 또 너는 내 앞에서 그들의 불평을 완전히 치우고 이로써 그들이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시니”(10).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의 막대기를 증언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막대기를 성막 입구나 제단 앞에 세워두지 않고 지성소의 언약 궤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4절에 따르면 이 막대기는 언약궤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궤를 지성소에 둘 때 언약궤 안에는 두 개의 돌 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궤 안에는 두 개의 돌 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렘에서 거기에 넣은 것이더라.”(왕상8:9). 만나를 담은 향아리나 아론의 썩 난 지팡이는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막대기를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증표가 되게” 하였고, 주 앞에서 백성들의 불평을 완전히 치우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 직분에 대해 또 반역하거나 불평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죽음을 당합니다. 이미 두 차례나 죽음의 심판이 있었지만 역사는 반복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죽지 않도록 이런 표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의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추측에서 나는 논쟁. 지성소에 둔 아론의 막대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❶ 계속 살아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을 것이다. ❷ 썩, 봉오리, 꽃과 열매는 곧바로 시들고 죽었을 것이다.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행하였더라.”(11). 모세는 주의 명령대로 아론의 막대기를 지성소 안 증언 앞에 두었습니다.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행하였더라.”(11). 이것이 신실한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의견,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망하나이다. 다 망하나이다.”(12).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죽음을 목격했고, 250명의 통치자들이 불에 타 죽었던 것을 보았고, 주의 칼에 순식간에 14,700명이 죽었는데 이번엔 아론의 싹 난 막대기를 본 백성들은 기쁨의 찬양이 아닌 죽음의 공포에 질렸습니다. 주께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표적으로 확증해 주시자 모세와 아론에 대해 불평했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론에게 힘을 더 해 주시고, 거둬진 신임을 통해 반대자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퇴출시키려던 뜻과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 자기들에게 임할 심판을 생각할 때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던 것입니다. 죄인들은 자기들에게 임할 심판이 ‘사형’이란 것을 압니다. 죄인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란 사실을 압니다. “보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망하나이다, 다 망하나이다.”(12). 이들의 외침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외침은 대언자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자신의 무가치함, 육신의 부패, 마음의 사악함을 보고 한 말도 아닙니다. 이들은 단지 심판의 두려움에 떨며 외쳤을 뿐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나 슬픔도 전혀 없이 “우리가 죽나이다, 망하나이다, 다 망하나이다.”라며 절망에 차 부르짖었습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는 죽으리니 우리가 죽어서 소멸되어야 하리이까? 하니라.”(13). 백성들의 이 말은 제사장의 허락없이, 제사장의 중보없이 주 앞으로 함부로 나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을 지키며 낯선 자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그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성막이 앞으로 갈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 내리고 성막을 칠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민1:51). 하나님은 성전 수비대를 두어서 아무나 함부로 성막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임명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할 것이요, 낯선 자가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민3:10).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주 앞으로 나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주께 분향하거나 헌물을 드리는 등의 일을 할 때 죽임을 당하고 소멸됩니다. 하나님은 “...낯선 자가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민3:38)고 하셨기에, 백성들은 율법대로 주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것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지키라. 내가 너희의 제사장 직무를 너희에게 섬김의 선물로 주었은즉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민18:7).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직무를 인정하고, 그들의 중보 사역을 통해 주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주}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는 죽으리니 우리가 죽어서 소멸되어야 하리이까? 하니라.”(13)고 했는데 이는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이는 어떤 사람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없이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율법 아래서 사람들은 주의 성막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서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주 앞으로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레위 제사장 앞으로 오는데 아무 제한이 없고 그들을 통해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앞으로 오는 데는 제한이나 제약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부르시고 초청하셨습니다.